광주·전남 농식품 수출 첫 3억달러 돌파

10월까지 3억1400만달러 … 지난해 보다 38.3% 증가

발효주 등 주류 1억400만달러 최고 … 전복·톳도 선전

광주·전남 지역의 농·식품 수출실적이 처음으로 3억달러를 돌파했다.

24일 농수산물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광주·전남 지역의 농식품 수출실적은 3억14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억2700만달러보다 38.3% 증가했다.

그동안 광주·전남지역 농식품 수출은 ▲2008년 2억400만달러 ▲2009년 2억4200만달러 ▲2010년 2억8700만달러 등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올해 농산물 수출액은 1억6300만달러로 지난해보다 40.2%증가했으며 수산물 37.2%(1억2100만달러), 임산물 29.8%(2200만달러), 축산물 29.6%(800만달러)가 각각 증가했다.

주요 품목별 수출실적은 ▲발효주 등 주류 1억400만달러 ▲전복 3100만달러 ▲톳 2400만달러 ▲미역 2200만달러, ▲유자차류와 김 각각 1100만달러 ▲배 · 파프리카·개아지살 각각 600만달러 등이다.

우리나라 전체 농·식품 수출실적은 10월 말 현재 59억4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6억4300만달러보다 27.2% 증가했다. 이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5.32%로 나타났다.

이종경 광주·전남 지사장은 "농·식품 수출 증가는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수출업체, 지자체가 삼위일체가 돼 지속적으로 외국시장을 개척한 결과"라며 "안정적인 농식품 공급기반을 조성하고 수출업체를 다각적으로 지원하면 농식품 수출량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아파트 임대료

최고 400% 인상 주민 반발

서민들 거리 내몰릴 처지

광주도시공사가 아파트 임대료를 최고 400% 인상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광주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은 24일 "광주도시공사가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를 최고 400%까지 인상해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광주도시공사가 2년마다 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영구임대아파트 세입자들에게 지난 15일 임대료와 보증금 등을 100%에서 400%까지 인상한 체결 안내서와 납부고지서를 발송해 영세세입자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일반 청약자는 400%, 차상위계층 100%, 수급자 세대는 전년도 인상률을 적용해 임대료를 현실화하려 했다는 광주도시공사의 인상안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요즘 국내외 경제가 어려운데다가 서민 체감경기가 최악인데 12월30일까지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세대는 엄동설한에 거리로 내몰릴 처지"라며 광주도시공사에 점진적 인상 등의 완충 대안 제시를 요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795.06 (+11.96)
▼ 코스닥지수	489.48 (-1.01)
▲ 금리 (국고채 3년)	3.38% (+0.02)
▲ 원·달러 환율	1158.50원 (+6.5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LED 등 중기업종 보호

市, 법률 개정작업 착수

광주시가 LED(발광다이오드)를 비롯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안 개정 작업에 나섰다.

광주시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LED 등 중소기업 업종보호 관련 법률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초안을 작성, 정부와 국회 그리고 각 정당을 대상으로 입법 건의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광주시가 이번에 마련한 개정법률안 초안은 ▲동반성장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어 법적 기구화하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일정 사업영역을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으로 지정하여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며 ▲대기업이 적합업종 분야에 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광주시가 이례적으로 법안 초안까지 마련해 관련법의 개정을 요청한 것은 지난 4일 동반성장위원회가 광주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LED등을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으로 선정·발표하였으나, 관련 대기업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일부에서는 적합업종 선정 유보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내가 취업할 곳은 어디…"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제2회 취업박람회가 24~25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75개사 참여해 375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경제 프리즘

윤병갑

생산성과 지방자치

지구촌 인구가 70억명을 넘어선 지금 치열한 경쟁 속에 앞서가던 미국과 유럽은 깊은 시름에 잠기고 있다. 반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는 역동감에 차있다.

동아시아에 속한 우리는 한발 앞서 서구 선진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아시아에서는 제법 앞서가는 나라지만, 인구 성장은 둔화하고 젊은 경제활동인구가 감소추세에 놓여 있어 새로운 발상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

지역경제를 위한 재정 자원은 한정돼 있고 지역기업들은 FTA 등으로 무한경쟁에 놓여있는 것 또한 사실임에 틀림없다.

지난 11월7일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에 다녀왔다. 230개 시·군·구가 참여해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명품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자는 자리였다.

대한민국의 국가생산성수준은 룩셈브르크의 53.7%, 미국의 60.8%, 일본의 87.4%수준으로 선진경쟁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 종래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한계에 부딪힌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런 시기에 맞춰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간 무한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가 민주성을 확보하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구현과 지방재정의 견실화를 위한 배경과 목적으로, 비용과 성과를 동시에 고려한 지자체'생산성지수를 개발하고 '생산성 대상을 제정·시행하게 된 것이다.

행안부가 밝힌 생산성지수는 크게 '내부관리생산성'과 '사업성과생산성'으로 나누고 있는데 먼저 내부관리 생산성 영역은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 가치를 창출하는 민관파트너십의 자치행정분야와 지방재정 건전성 및 예산운영의 효율성 등 지방재정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생산성의 개념을 도입해서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고 시상하는 것은 국내는 물론 세계 최초로 시행된 것이라고 하니 선진경제로 향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커다란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다.

물론 정량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정성적 측면을 고려해서 행안부와 생산성본부가 공동으로 개발한 지자체 생산성지수의 비교측청이 결과적으로 지자체 생산성 자체 진단에 잘 활용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시·군·구의 능률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자체 진단 및 성과측정 도구로 활용되고 유사 시·군·구간에 벤치마킹 대상이 돼 유용한 상호 정보제공의 틀이 될 것이라 본다.

기업가에게는 경영하기 좋은, 지역 주민은 살기 좋은,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하는데 기폭제가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이 시점에 필자는 생산성과 경제성 그리고 인문학경영이란 화두를 연결하여 생각해 본다.

어려운 지방재정 속에서도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달리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에서 더 나아가 이번에 개발된 생산성지수를 통해 관측되고 수치화된 지방행정의 경영이 필요하다.

지역소재 기업 또한 경영의 복잡성이 증대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등 통계적 분석기법으로는 예측이 곤란한 현상에 대해 인문학적 통찰력을 통해서 새로운 돌파구가 요구되는 시기라 판단한다.

지자체의 생산성 의식과 기업의 경제적 측면은 물론 인문학적 경영은 둘이 아닌 하나의 동전 앞뒷면으로서 상호간 조화와 균형잡힌 시각이 필요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리라 본다.

열악한 지방재정 속에서도 지역개발은 계속돼야 하고 지역사회의 여러 기업들도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뤄야 한다.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인생과 행복한 가정을 갖고자하는 궁극적인 꿈을 이룰 수 있는 원천이기에 그렇다.

다시 한번 최초로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지수개발과 제1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시상을 계기로 모든 조직이 경제성과 생산성 그리고 인문학경영에 대해 창의적인 조화와 균형 감각을 기대해 본다.

〈한국생산성본부 호남지역본부장〉

▲ KPC 지역발전정책자문위원
▲ 전국 e-러닝연합회 부회장
▲ 전남도 물가심의 위원